



두근 두근 널 향한 내 심장소리 들리니?

새 신랑 새 신부가 서로 두근대고 부끄러워하듯이
나... 너를 보고 있으면 설레이고 콩닥거려~**~*
부끄~부끄~ 널 향한 내 심장 소리 들리니?



2017/1/8

— 참부모님께 —

참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참부모님을 볼때 제일 야나 다른사람들모두와 참부모님은 친한 친구 같았어요
친구가 원래 먹물게 있으면 잘 나누먹고 도와주고 쓰잘대도 있지만
좌재를 할때마다 더욱~더 정이 쌓이고 신나게 놀잖아요. 이제 보니까
참부모님께서는 친화력이 좋으시네요. 저는 그런일을 하면 같이 놀사람도
없고 그럴줄 알았는데 참부모님은 모든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참 신기해요.
저도 어렸을때 부터 참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고싶어요. 자기 자신에 맞은
똑바로 잘하는데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은 사람이 되고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전절 할수 없었을 말았는데 참부모님을 보니까 용기가 생겨요.
참부모님 참부모님께서는 이런 저를 보고 무너하실진 모르겠지만 저의 이글을
또한 번이라도 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불명 불명히
세계 통일을 이룰수 있을거라고 믿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꼭두가 참부모님 믿는게 신기하고 이런 참부모님이 대단하신것 같아요. 아!
제가 못 말한 말이있는데 그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2017/1/8

— 이종문 - 옥감